

다문화 가정의 부모관계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이원재^{1*}, 김선²

¹금광초등학교, ²호원초등학교

Study of Multicultural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chool Adjustment

Won-Jae, Lee^{1*} and Sun, Kim²

¹Geum Gwang Elementary School, ²Ho Won Elementary School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학교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가정 아동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5-6학년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다문화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 등 다문화가정 학생의 아버지에게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교육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children's parent-child which I used as a control. To do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f students with basic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5th and 6th grades who are enrolled in elementary school in Gyeonggi Province. In the study, the multicultural children's group, when compared to other groups, had a fa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that was found to be lower. A study will be made analyzing the father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including the father's role in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the fact that the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significantly affects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f multicultural family parents have access to a variety of training programs in education, then multicultural children school adjustment will be further enhanced.

Key Words : Multicultural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Multicultural Children's school adjust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노미(Danomi)는 현재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의 현상을 표현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를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부적응 및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문화와

인식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이다.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며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초반에는 국제결혼가정, 이중문화가정, 혼혈인가정 등을 지칭하는 의미를 띠었다. 이후 종교적인 이유, 1990년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의 이유로 인해 국제 결혼사례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Corresponding Author : Won-Jae, Lee(Geum Gwang elementary school)

Tel: +82-64-672-3080 email: jj0909072@naver.com

Received October 21, 2013

Revised (1st November 25, 2013, 2nd November 29, 2013, 3rd December 9, 2013)

Accepted March 6, 2014

다문화가정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호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법제처, 2011).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민족, 단일국가임을 강조하며 한국인만이 지닌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통계청(2010) 한국 사회지표에 의하면 한국 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00년 210,249명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여 2009년 870,636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새터민의 경우 2000년 312명에 불과했던 입국자가 2009년 기준 2,927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들이 한국 내에서 정착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홍기원(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하나의 다문화정책으로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급격한 다문화가정의 증가, 정부의 계획적이지 못한 정책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교적응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보이는데 이재분(2008)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신체적 자아개념이 고학년이 될수록 저학년, 혹은 중학년의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가정적 자아개념의 경우는 타 영역에 비해 부정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체감의 혼란과 그로 인한 부정적 자아개념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은 부모가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한쪽 부모가 한국어 사용에 미숙하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습득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동훈 외(2005)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언어문제가 가장 크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어머니 역시 언어문제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부재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학생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및 학업문제,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및 무기력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 집단 따돌림과 같은 또래와의 문제와 더불어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탈학교 비율을 살펴보면 각 학교별 전체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 초등학교 14%, 중학생 16%, 고등학생 30%, 초, 중, 고 전체로 보았을 때는

27%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인다(이재분, 2008). 이들은 주로 학업, 차별, 가정형편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중도에 학업을 그만 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경숙(2007)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학업'을 학교생활에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문화 부적응에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다문화가정의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 관련된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정지영, 2008). 실제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접하면서 나타난 어머니의 소극적인 대인관계 성향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감의 결여 및 대인관계의 폐쇄적 형성과 학업성취도의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오성배, 2005), 다문화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부부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음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가 우울증을 일으킬 위험성도 크다(김경자, 2008).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연구들은 학교 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에 관한 연구이거나(김갑성, 2006; 김인, 2009; 설동훈 외, 2005; 이영재, 1998; 이재분, 2008;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사관련 변인 연구(모경환, 2009; 안명순, 2010; 오연경, 2008; 정지영, 2008),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 및 다문화가정 부모와 관련된 연구(박경민, 2009; 은성경, 2009; 이윤호, 2009; 한정애, 2009) 등으로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부모와의 관계와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을 부모 변인으로 규정하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여 교사 및 또래관계를 포함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가정 아동과 부모관계의 질 및 학교적응 양상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고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교육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 및 학교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5-6학년 학생들이다. 연구 대상 선정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지고 중학교 입학 전 준비도와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탈학교비율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아동, 다문화학교 내 일반가정아동(이하 다문화/일반가정아동), 일반가정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집단의 특성으로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이란,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동,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재혼한 가정(중도입국자녀)을 말하고, 둘째, 다문화/일반가정아동이란 다수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가정 아동을 말한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변인 외에 다른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셋째, 일반가정 아동이란 다문화아동이 재학하지 않는 학교 내의 일반가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설문할 수 있도록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제작된 600부의 설문지가 발송하였고, 그 중 54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1%).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한 영역 이상 응답이 누락되거나, 배경 변인을 응답하지 않아 불분명한 조사 대상자의 설문 10부를 제외하고 5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최인재(2007)가 개발한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어머니-

자녀 관계는 .91, 아버지-자녀 관계는 .93, 전체 신뢰도는 .94였다. 학생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김용래(2000)가 개발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관계 및 학교적응에 대한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부모관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의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관계의 질이 어떻게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각 집단의 부모-자녀 관계 및 학교적응의 차이

3.1.1 집단 간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다문화가정, 다문화/일반가정, 일반가정별로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Table 1과 같이 각 집단 간 부모-자녀 관계의 질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어머니-자녀 관계」에서 다문화가정은 평균 3.85, 다문화/일반가정은 평균 3.93, 일

[Table 1]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Domain	Sub-factors	Group	Number	Mean	Standard Deviation	F-test	Scheffe Verifica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Mother-Children relationship	Multicultural Family(a)	125	3.85	.65	1.227	
		Multicultural/Single Cultural Family(b)	209	3.93	.68		
		Single Cultural Family(c)	198	3.96	.63		
	Father-Children relationship	Multicultural Family(a)	125	3.59	.79	4.992**	a <b,c
		Multicultural/Single Cultural Family(b)	209	3.85	.76		
		Single Cultural Family(c)	198	3.82	.74		

** p <.01

[Table 2] Between-group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Domain	Sub-factors	Group	Number	Mean	Standard Deviation	F-test	Scheffe Verification
School Adjustment	School Environment	Multicultural Family(a)	125	3.50	.79	.467	
		Multicultural/Single Cultural Family(b)	209	3.44	.81		
		Single Cultural Family(c)	201	3.51	.73		
	School Teacher	Multicultural Family(a)	125	3.56	.71	2.269	
		Multicultural/Single Cultural Family(b)	209	3.37	.86		
		Single Cultural Family(c)	201	3.47	.72		
	School Class	Multicultural Family(a)	125	3.10	.76	3.333*	b < a < c
		Multicultural/Single Cultural Family(b)	209	3.00	.79		
		Single Cultural Family(c)	201	3.20	.73		
	School Friend	Multicultural Family(a)	125	3.32	.73	3.809*	b < a,c
		Multicultural/Single Cultural Family(b)	209	3.13	.77		
		Single Cultural Family(c)	201	3.30	.63		
	School Life	Multicultural Family(a)	125	3.49	.70	.717	
		Multicultural/Single Cultural Family(b)	209	3.47	.76		
		Single Cultural Family(c)	201	3.55	.64		
	All School Adjustment	Multicultural Family(a)	125	3.40	.63	2.213	
		Multicultural/Single Cultural Family(b)	209	3.29	.68		
		Single Cultural Family(c)	201	3.41	.59		

** p < .05

반가정 집단은 평균 3.96으로 나타났으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자녀 관계」에서 다문화가정은 평균 3.59, 다문화/일반가정은 평균 3.85, 일반가정 집단은 평균 3.82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아버지-자녀관계」영역에서 F값 4.992, 유의확률 .007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버지-자녀관계」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일반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재학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아동에 비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1.2 집단 간 학교적응의 차이

각 집단 간 학교적응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 수업적응」의 영역에서 일반가정 집단이 가장 높았고 (M=3.20, SD=.73), 다문화가정(M=3.10, SD=.76), 다문화/일반가정(M=3.00, SD=.79)의 순이었다. 「학교친구적응」의 영역에서는 다문화가정은 평균 3.32, 다문화/일반가정 집단은 평균 3.13, 일반가정은 평균 3.30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학교수업적응」영역에서 F값 3.333, 유의확률 .036, 「학교친구적응」영역에서 F값 3.809, 유의확률 .02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간 학교적응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3.2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아동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Mean and Standarddeviation of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
Mother-Child	3.85	0.65
Father-Child	3.59	0.80
School Environment	3.50	0.79
School Teacher	3.56	0.71
School Class	3.10	0.76
School Friend	3.32	0.73
School Life	3.49	0.70
School Adjustment	3.40	0.63

[Table 4] Correlations for each domain

Variables	1	2	3	4	5	6	7	8
1. Mother-child	1							
2. Father-child	.637**	1						
3. School nvironment	.353**	.388**	1					
4. School Teacher	.492**	.484**	.689**	1				
5. School Class	.273**	.294**	.564**	.608**	1			
6. School Friend	.390**	.288**	.707**	.647**	.505**	1		
7. School Life	.426**	.362**	.798**	.680**	.654**	.642**	1	
8. School Adjustment	.454**	.435**	.898**	.868**	.781**	.815**	.875**	1

**p <.0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은 평균 3.85, 표준편차 .65,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은 평균 3.59, 표준편차 .79, 학생의 「학교환경」 영역은 평균 3.50, 표준편차 .79, 「교사적응」 영역은 평균 3.56, 표준편차 .71, 「수업적응」 영역은 평균 3.10, 표준편차 .76, 「친구적응」 영역은 평균 3.32, 표준편차 .73, 「학교생활」 영역은 평균 3.49, 표준편차 .70, 「학교적응」 영역은 평균 3.40, 표준편차 .63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모 관계의 질과 학교적응 및 학교 적응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부모 관계의 질과 학교 적응의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어머니-자녀관계의 질과 학교적응 및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과의 상관계수는 교사적응 영역 .492, 학교생활 영역 .426, 학교적응 전체 영역 .454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그 외 하위 영역에서는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계수는 교사적응 영역 .484, 학교적응 전체 영역 .435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외 하위 영역에서는 상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자녀의 질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자녀의 질이 「학교적응」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4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5.627, p <.001$), 학교적응력의 20.6%가 설명되고 있었고,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4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5.273, p <.001$), 학교환경적응력의 18.9%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환경적응」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

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3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4.171, p <.001$), 학교환경적응의 12.5%가 설명되고 있었고,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3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4.596, p <.001$), 학교환경적응의 15.1%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적응」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4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6.243, p <.001$), 교사적응의 24.2%가 설명되고 있었고,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4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6.028, p <.001$), 학교교사적응의 23.4%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2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3.133, p <.01$), 수업적응의 7.4%가 설명되고 있었고,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2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3.353, p <.01$), 수업적응의 8.6%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적응」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3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4.674, p <.001$), 친구적응의 15.2%가 설명되고 있었고,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2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3.278, p <.01$), 친구적응의 8.3%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4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5.198, p <.001$), 학교생활의 18.1%가 설명되고 있었고,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은 표준화 계수 .3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4.236, p <.001$), 학교생활의 13.1%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의 질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 및 모든 하위 영역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부모-자녀의 질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과 같다.

[Table 5] The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mpact on school adjustment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test	R ²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Modulation R ²	F-test	P-value (Significance level)
		B	β					
School Environment	Mother-Child	.431	.353	4.171***	.125	.118	17.397	.000
	Father-Child	.391	.388	4.596***	.151	.144	21.124	.000
School Teacher	Mother-Child	.542	.492	6.243***	.242	.236	38.980	.000
	Father-Child	.440	.484	6.028***	.234	.227	36.333	.000
School Class	Mother-Child	.319	.273	3.133**	.074	.067	9.818	.002
	Father-Child	.283	.294	3.353**	.086	.079	11.242	.001
School Friend	Mother-Child	.438	.390	4.674***	.152	.145	21.845	.000
	Father-Child	.267	.288	3.278**	.083	.075	10.744	.001
School Life	Mother-Child	.461	.426	5.198***	.181	.175	27.021	.000
	Father-Child	.325	.362	4.236***	.131	.124	17.947	.000
School Adjustment	Mother-Child	.442	.454	5.627***	.206	.200	31.658	.000
	Father-Child	.351	.435	5.273***	.189	.183	27.800	.000

** p < .01, *** p < .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 및 학교 적응을 살펴보고,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학교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관계의 질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주간조선, 2011)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외국인 어머니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문화 체험,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님의 나라 및 문화 체험, 일반가정 학생의 외국의 다른 나라의 문화 체험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문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제는 외국인 어머니, 다른 나라와의 문화 교류 등의 다문화 교육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 아동 아버지의 참여, 다문화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등 다문화가정 아동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다문화/일반가정, 일반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 면에서 다문화/일반가정 집단의 학생이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학생보다 학교 적응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가정 학생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설동훈 외, 2005; 이윤호, 2009; 정지영, 2008)들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교육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굿네이버스, 개별 상담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가 하면, 한국 문화 체험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계절에 맞는 캠프 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일반가정 학생들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 실제로 안명순(2010)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급에서 일반가정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비해 인적, 물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가정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일반가정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학교 적응에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학교교사적응과 학교생활적응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에서 부모-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상담 및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대인관계 기술 향상 프로그램,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및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적응도 향상될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 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전개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가정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미래의 한국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 될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적응을 돕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학교적응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즉 5-6학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다문화가정 부모의 국적이 일본,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영어, 중국어, 일어로 된 설문지를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어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모국어 글자 읽기조차 불가능한 경우 설문에서 제외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구두로 녹음하여 듣기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을 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본 설문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학교적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모의 다양한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한국어 실력, 부모의 교육적 수준 등 학생의 학업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들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 현장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교육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학생과 아버지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수용적인 학교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급 학생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실현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교육적 혜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주어지는 반면 일반가정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교육적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체계가 계속된다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수용적인 학급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이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ong Gi-Won, "South Korea's cultural policy issues and Improvement", Korea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3, 3, pp. 169-189, 2009.
- [2] Lee Jae-Boon, Multicultural children's education status Study: International Marriage around (RR2008-12), p. 77-143,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08.
- [3] Seol Dong-Hun, Kim Yun-Tae, Kim Hyeon-Mi, Yoon Hong-Sik, Lee Hae-Kyung, Lim Kyung-Taek, Jung Ki-Seon, Ju Young-Su, Han Geon-su, Survey of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and health welfare policy measures, p. 371-378,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 [4] Jeon Gyeong-Suk, "Survey about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single cultural family children's life status in Gyeonggi Province, - centered school and home life", Youth Counseling Research, 16, 1, pp. 167-185, 2008.
- [5] Jeong Ji-Young,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eachers of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search conflicts, p. 5-19,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8.

[6] Oh Seong-Bae, "Kosian (Kosian) on the child's growth and environmental case studies", Korea Education, 32, 3, pp. 61-83, 2005.

[7] Kim Gyeong-Ja, Multicultural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p. 9-19, Chin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8.

[8] Kim Gap-Se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Survey of status of children's education, p. 43-87, Seoul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6.

[9] Kim In, "Multicultural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Status and directing point",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22, 1, pp.23-42, 2009.

[10] Lee Young-Jae, Study on the child's school life adjustment, p. 20-40,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8.

[11] Jo Young-Dal, "Survey of status in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Policy Research Project 3, pp.1, 2006.

[12] Mo Gyeong-Hwan, "Status and challenges of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Korea Teacher Education, 26, 4, pp. 245-270, 2009.

[13] An Myeong-Soon, The recognitio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p. 13-52,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0.

[14] Oh Yeon-Gyeong, Elementary teacher's role for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p. 24-46,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8.

[15] Park Kyung - M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environmental factors impact on social adaptation : A case study, p. 43-67,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Information, 2009.

[16] Eun Seon-Ky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ulticultural Families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p. 44-87, Soongsil University, 2009.

[17] Lee Yun-Ho, Raising multicultural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ttachment, self-esteem, social support research on the impact of - comparisons with single cultural family children, p. 28-46,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9.

[18] Han Jeong-Ae, Analysis about School adjustment process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p. 14-31, Kyungsh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9.

[19] Choi In-Jae, "Korean parent-child relationship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search", Welfare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pp. 45-56, 2007.

[20] Kim Young-Lae, "School of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scale validation an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measure", Academic Jour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pp.3-37, 2000.

[21]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Interne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2011[cited 2011 Apr 5], Available From: www.moleg.go.kr. (accessed Jan., 18. 2010)

[22] Youth Statistics (multicultural youth); Status of multicultural youth[Internet], Statistics Korea, c2010 [cited 2011 Jan 2], Available From: www.kostat.go.kr. (accessed Jan., 18. 2010)

[23] Yoo Ma-Di, Kim Kyung-Min, Special Report multicultural children are leaving school Issue 2151[Internet], Available From: www.chosun.com/. (accessed Apr., 11. 2011)

이 원 재(Won-Jae,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춘천교육대학교 초 등교육학과 학사
- 2006년 2월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석사
- 2012년 8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 및 평가 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금광초등학교 교사

<관심분야>

특수교육, 교육과정, 측정 및 평가

김 선(Sun,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경인교육대학교 초 등교육학과 학사
- 2011년 8월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
- 2004년 3월 ~ 2010년 2월: 당동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 2011년 3월 ~ 현재: 호원초등학교 귀국학생 특별학급 담당교사

<관심분야>

다문화교육, 영어교육, 아동상담